

중국과 1대3 싸움, 1점차 살얼음 승부 강심장



24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준홍이 시상식에서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격 2관왕 순천출신 김준홍... 오늘 3관왕 정조준

전국체전 전남 대표인 예비역 병장 김준홍(24·KB국민은행·사천)이 아시아 최고의 저격수로 등극했다. 김준홍은 24일 인천 육군국체사격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25m 속사권총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며 2관왕에 올랐다. 김준홍은 사격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장전을 1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열린 단체전에서 장대규(38·KB국민은행)·송종호(상무)와 함께 중국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거머쥔 그는 '고교생 총잡이' 김정용(17·흥덕고)에 이어 이번 대회 한국 사격 두번째 2관왕에 올랐다. 속사권총 결선은 각 선수가 4초 안에 5발을 다른 표적(5개)에 쏘고 9.7점 이상이면 명중, 미만이면 실종으로 판단해 명중 개수로 점수를 낸다. 4번째 시기가 끝난 뒤부터 최저 득점자를 탈락시키며, 7차 시기까지 치른다. 김준홍은 결선에 오른 2명의 대표팀 동료들이 나란히 떨어져 1-3으로 중국 선수들과 경쟁했지만 사상대 팬 대기기에 섰다. 결선 4번째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장전에 15-17로 뒤졌던 김준홍은 5.6번째 시리즈에서 합계 9점을 기록하며 6점에 그친 장전을 따돌렸다. 1점 차 리드를

이던 김준홍은 마지막 8번째 시리즈에서 부담감을 극복하고 장전과 나란히 3점을 쏘며 장전을 꺾는데 성공했다. 순천에서 태어난 김준홍은 서울고와 한국체대를 거쳐 상무에 자원 입대했다. 체계적으로 사격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사격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 기량과 멘탈이 한층 강해졌다. 지난 9일 제대한 그는 6월 열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4차 선발전에서 592점 한국 신기록을 썼다. 또 7월 베이징 월드컵 본선에도 593점을 쏘 세계신기록과 타이틀 이뤘다. 이달 중순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25m 속사권총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름을 알렸다. 전남과는 지난 2008년 제9회 전국체전에 도대표로 인연을 맺어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제95회 전국체전에서는 속사권총과 스탠다드에서 은메달 2개를 전남에 안겼다. 한국 사격의 망령 장대규는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김준홍과 함께 사대에 올라 '금빛 총성'을 울렸다. 함평 출신인 장대규는 함평 월야초·중, 목포기계공고, 동신대를 나온 전남 토박이다. 정연택 전남사격연맹 전무이사는 "(장)대규는 한

국 남자 사격의 망령으로 고등학교때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등 속사권총의 1인자"라며 "특히 대규는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해 긴장으로 흔들리기 쉬운 후배들을 품고 있다"고 전했다. 2관왕에 오른 김준홍도 경기 후 "편하게 쏘고 나오라는 대규형의 말이 도움이 됐다. 나 자신을 낮추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했다. 김준홍과 장대규는 25일 25m 스탠다드 권총에서 한 번 더 '금빛 총성'을 울릴 계획이다. 한국 여자 유도 의 기대주 김성연(23·광주도시설도공사)은 지난 23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여자 단체전에서 2관왕을 노렸지만 일본에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김성연은 한국의 네번째 주자로 나서 개인전 결승에서 꺾은 일본의 아라이 치즈루와 재격돌,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어렵게 지도를 받으면서 패했다. 금메달의 기대를 모았던 여자 양궁의 이특영(25·광주시청)은 이날 열린 예선 이틀째 경기에서 탈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 여자 양궁은 곡성 출신의 주현정(32·현대모비스)이 단체전에 출전하고, 정다소미(24·현대백화점)와 장재진(27·LH)은 개인·단체전에 모두 나서 금메달을 사냥한다. 한편, 24일 오후 8시 현재 한국은 금메달 25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23개로 종합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수 끝 AG 첫 금, 이렇게 좋을수가”

화순 출신 이용대, 배드민턴 남자 단체전

“번번이 중국에 져 자존심이 상했는데 인천에서 우승하게 돼 더 기쁩니다.” 화순 출신의 ‘셔틀콕 황제’ 이용대(26·삼성전기)가 아시안게임 삼수 끝에 ‘황금의 워크’를 날렸다. 이용대는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남자 단체전(3단2복식) 결승에서 파트너 유연성(28·국군체육부대)과 함께 2복식 주자로 나서 1승을 챙기며 한국의 3-1 승리를 쟁겼다. 이용대-유연성은 중국의 장난-쉬첸을 만나 2-0으로 완파했다. 이용대는 첫 세트에서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23-21로 기선을 잡았고, 둘째 세트에서 21-13으로 가볍게 만리장성을 넘었다. 한국 대표팀은 1단식·2복식에서 잇따라 이기며 2-0으로 앞섰지만, 3단식·4복식에서 연달아 패해 승부를 짓지 못했다. 마지막 단식에 나선 대표팀의 망령 이현일(34·MG새마을금고)이 중국의 가오 후안을 2대0 제압하자 이용대를 비롯한 후배 선수들은 앞으로 달려나와 함께 금메달의 기쁨을 맛봤다. 장장 5시간의 ‘콧물’였다. ‘셔틀콕 황제’ 이용대는 올해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올해 초 약물검사 절차 위반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협회 차원의 소명 작업을 거쳐 자격정지에서는 벗어났다. 복귀 후, 일본오픈과 인도네시아오픈, 호주오픈을 잇달아 석권

하며 정상계도에 올라섰다. 이용대-유연성은 지난해 10월 남자복식 파트너를 이뤘던 10개월여 만에 세계랭킹 1위로 복귀했다. 180cm에 76kg의 호리호리한 몸매의 이용대는 연예인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열정 배드민턴 선수다. 화순초 2학년때 부모의 권유로 라켓을 처음 잡은 후 전국대회 우승을 통해 일찌감치 배드민턴계의 최고 재목으로 주목받았다. 화순중 3학년때 전국여름철종별선수권대회 남중부 단체, 단·복식을 잇따라 석권, 대회 3관왕에 오르며 중학생으로는 첫 국가대표에 발탁돼 태릉선수촌 입촌의 꿈을 이뤘다. 화순실고에 진학한 그는 국가대표 출신 박찬웅 감독을 만나 단식에서 복식 선수로 전환하며 자신의 재능을 한껏 펼치며 비상했다. 이용대의 올해의 목표는 ‘그랜드슬램’(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올림픽) 달성이었다. 그동안 인연이 닿지 않았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고성현-신백철(김천시청) 조에 밀리며 잡혀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용대는 유연성과 출전할 남자 복식에서도 금메달 사냥을 노리고 있다. 그는 “단체전이 끝났으니 이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달려가겠다”며 “또 하나의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

女배구 태국 누르고 2승... 오늘 일본전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한국 여자배구가 20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한국은 지난 23일 태국과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A조 예선 2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3-0으로 승리했다. 조별예선 2승을 거둔 한국은 25일 일본과 마지막 예선을 치르지만 이 경기에서도 승리가 점쳐진다. 일본은 앞선 태국과의 경기에서

1-3으로 패했다. 난적으로 쪼갰던 태국을 제압하면서 한국이 경계할 상대는 중국만이 남았다. 중국은 세계랭킹 5위로 한국(세계랭킹 7위)에 앞서지만 일정이 겹친 세계선수권대회에 1진을 내보냈다. 이선구 감독은 “2진이 나왔다 해도 방심할 수 없지만 한국으로선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이용대 포효 이용대(오른쪽)와 유연성이 지난 23일 열린 남자 단체전 중국과의 결승에서 두 번째 주자로 나서 1세트를 이긴 뒤 포효하고 있다. 한국이 3-2로 이기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는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인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의 아시안게임 (25일·목)
- ▲야구 = 조별예선 한국-홍콩(18시30분·목동야구장)
 - ▲볼링 = 박종우·최복음(이상 광양시청) 남자 2인조 스쿼드 B(14시30분·안양호계체육관)
 - ▲축구 = 이종호·김영욱(이상 전남드래곤즈) 남자 16강전 한국-홍콩(20시·고양종합운동장)
 - ▲펜싱 = 최은숙(광주서구청) 여자 에페 단체전(9시·이상 고양체육관)
 - ▲체조 = 양학선(한국체대) 남녀 개인전 결승(19시·남동체육관)
 - ▲골프 = 공태현(호남대)·김영웅(함평골프고)

- 박결(동일전자정보고) 남녀 개인전 라운드(7시20분) 남녀 단체전 라운드(7시20분·이상 드림파크컨트리클럽)
- ▲사격 = 정유진(남자 10m러닝 타겟·장흥군청), 이보나(여자 더블트랩·갤러리아), 장대규(국민은행)·김준홍(상무·이상 25m 스탠다드) 남자 25m 스탠다드 권총(9시) 남자 10m 러닝타겟 본선(9시) 여자 더블 트랩 결승(9시) 여자 단체 더블 트랩 결승(9시·이상 경기도 종합사격장)
 - ▲수구 = 유병진(전남수영연맹)·윤영관·이현우·추민중(이상 한국체대) 남자 예선 한국-키자흐스탄(19시·드림파크수영장)